

교사 소모임 컨설팅 실천사례

1 인성교육 실천사례

인성교육 실천사례 1

조경숙_울산호계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5세반

적용시기 3~11월

실천방법 등하원 시 / 일상적 양육활동 시 / 자유선택활동 시간 / 대소집단활동 시간 / 실외활동 시간

실천내용

1. 경청, 긍정적 태도, 감사, 배려, 인내의 인성을 정의와 노래로 배워보기
2. 각 인성마다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정하여 실천하여 보기
3. 가정연계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활동 하기
(예: 감사 편지쓰기, 배려 게임하기, 인내하기 등)
4.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용하기
5. 홈페이지 가정에서 활동한 것 올려서 공유하기



인내의 정의를 노래로 배워요



인내 게임(틀린 그림 찾기)

교육효과

1. 유아의 변화

- 인성활동을 통하여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유아들이 알고 먼저 배려하고 인내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하루 활동 중 한 가지를 실천하고 인성 활동 표에 자발적으로 표시함
- 주어진 시간동안(모래시계 활용) 활용하여 착석 함
- 가정연계 활동으로 가정에서 실천한 것을 동영상으로 카페에 올린 후 어린이집에 와서 느낀 점을 발표함으로써 성취감을 보임
- 인성활동을 한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며 인성활동에 적극적 참여하는 계기가 됨

2. 교사의 변화

- 유아들과 인성을 해나가면서 교사의 인성이 먼저 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김
- 유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음
-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유아들과 함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큰 도움이 됨

제 언

경청, 감사, 배려, 긍정적인 태도, 인내를 하면서 유아들의 인성이 조금씩 변화되며 특히 언어 순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보임. 유아들이 생활하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인성 교육 했던 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니 유아들이 쉽게 이해함. 인성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눈에 띄게 달라짐. 유아들에게만 이야기 하던 것을 교사가 먼저 실천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으며, 집에서도 인성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서 부모님들께서도 아주 만족해하심. 앞으로도 반복적인 인성교육을 통하여 좀 더 인성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인성교육 실천사례 2

장명희_푸른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3~4세반

적용시기 3~11월

실천방법 등하원 시 / 자유선택활동 시간 / 실외활동 시간

실천내용

1. 등·하원 시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 바르게 “안녕하세요?”라고 하며 인사를 함
2. 자유선택활동 시 일주일에 2번씩 오시는 동화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공손히 “할머니 동화책 읽어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봄
3. 실외활동을 나갈 때 어린이집 1층 경로당 어른들께 인사를 하며 높임말로 해 봄
4. 실외활동 시 함께 활동을 하는 영아반 동생들에게 양보와 배려를 해 봄



동생들과 함께 놀아요



동화 할머니와 함께 책을 읽어요

교육효과

1. 유아의 변화

- 등·하원 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던 유아들이 부모님과, 선생님이 함께 인사를 하면서 조금씩 적극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함
- 실외활동 시 어린이집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어른들께 썩썩하게 인사를 하며 예의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의 변화가 관찰 됨
- 영아반 동생들과 함께 놀면서 양보와 배려를 하면서 “도와줄까?”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임

2. 교사의 변화

- 유아에게 “인사해야지” 라고 말하기보다 교사가 먼저 인사를 하면서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하는 모습을 보임
- 유아들을 가르침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한 인격체로 대할 수 있었음
- 유아에게 사용되어지는 언어에 더 신경을 쓰면서 유아-교사간의 예의를 갖추며 대하려는 자세가 생김

제 언

인성교육은 늘 강조해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음. 교사-유아, 유아-유아 간의 모든 관계들이 소중함을 느끼는 만큼 서로간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깨달음. 누리 소모임을 통해 다양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들에게 적용하며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서 유익함을 느꼈고, 함께 하는 교사들과 공통으로 느껴지는 고민들을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음

녹색성장교육 실천사례 1

김신혜_울산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3세반

적용시기 8~11월

실천방법 일상적 양육활동 시 / 자유선택활동 시간 / 대소집단활동 시간

실천내용

1. 노래, 이야기나누기 통해 일상생활에서 물에 대한 관심 갖기
2. 손 씻을 때 물비누 적당히 사용하기
3. 양치 시 물 컵 사용하기
4. 물장난 하지 않기
5. 교실 화분에 깨끗한 물 적당히 주기



물비누를 적당히 사용해요



교실 화분에 물을 주어요

교육효과

1. 유아의 변화

-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되며 날씨에 관심을 가짐
- 유니세프 아우아우 '물' 이야기를 보며 물이 부족해지고 있음을 알게 됨
- 깨끗한 물을 소중하게 대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야기해보며 실천함
- 손을 씻을 때 무분별하게 사용하던 물비누를 적당히 사용하려 의식함
- 손을 씻으며 물을 이용한 장난의 횟수가 줄어들며 물을 아껴 썼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을 표현함
- 양치 시 물을 틀어놓은 채 물 컵을 사용하던 모습이 물 컵에 물을 받고 수도꼭지를 잠그는 모습을 보임
- 교실에서 키우는 화분에 이전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며 물 조리개로 조금씩 주는 모습을 보임

2. 교사의 변화

- 일상생활에서 유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유아가 물에 대해 자연스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계하려 노력함
- 유아와 함께 바른 손 씻기 실천을 해보며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함
- 화분이 잘 자라나는 과정을 살펴보며 자연스레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고 유아와

함께 가꾸게 됨

제 언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자 유아들은 물을 소중히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짐. 가뭄에 대한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눌 때 유아들이 물이 없어서 가뭄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임. 음식을 만들 때, 손을 씻을 때, 양치할 때 등 물이 사용되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며 유아 스스로 의식적으로 물을 아껴 쓰려고 하며, 물을 소중히 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됨
녹색성장교육을 통해 친숙해서 잘 생각하지 않는 자연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며 소중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

녹색성장교육 실천사례 2

박세나_원동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3세반

적용시기 5~11월

실천방법 일상적 양육활동 시 / 자유선택활동 시간 / 실외활동 시간

실천내용

1.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연에 관해, 동식물의 세계에 대해, 우리가 자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보기
2. 교실에 새싹을 심어 둔 후, 오전 자유놀이시간마다 자발적으로 ‘사랑해’하고 말하며 직접 물 뿌려보기
3.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재활용이 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
4. 신문을 분리수거 하면 무엇이 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신문을 이용하여 신나게 논 후, 휴지통이 아닌 박스에 담아 직접 분리수거 해보기
5. 간식 먹은 후 나오는 요구르트 병, 요거트 통, 우유 곱을 직접 씻어 파란색 분리수거 휴지통에 분리수거하기, 빨대는 일반휴지통에 따로 버리기
6. 내가 씻은 요구르트 병으로 트리 만들어 보기



새싹에게 ‘사랑해’하며 물 뿌려보아요



신문지로 신나게 놀아요



내가 마신 요구르트 병으로 트리를 만들어요

교육효과 1. 유아의 변화

- 교실에 있던 화분에는 관심이 없던 유아들이 ‘오늘은 물 안줘요?’ 하며 먼저 관심을 갖고, 식물에 물주는 것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새싹이 이만큼 자랐어요!’하고 먼저 알아보는 유아들도 있고, 시든 새싹이 있으면 ‘이건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가

물 안줘서 그래요?’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그러면서 어린이집 밖에 있는 식물들도 예쁘다고 꺾거나 만지면 이렇게 시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자연을 지켜주기로 약속해 봄

- 처음 요구르트 병이나, 우유 곱 등을 씻어 올 때는 물장난에 더 관심을 보이던 유아들이 이제는 교사가 말하지 않아도 빨대는 일반휴지통에 버린 후 ‘씻어 와요?’ 하며 화장실로 가 씻어옴. 그 후, 요구르트 병, 요거트 통은 파란색 분리수거 휴지통에 버리고, 우유 곱은 마른 걸레 위에 얹어주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짐
- 또한 유아들이 씻어온 요구르트 병으로 만들기를 해보고, 유아들이 씻어온 요거트 통으로 종 모빌을 만들어 주니 ‘이거 우리가 씻은 걸로 만든 거예요?’ 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2. 교사의 변화

- 예전에는 예쁜 꽃이나 열매가 있으면 같이 만져보고 교실로 가지고 왔다면 이제는 유아들이 ‘꽃 지켜줘야 해요? 들고 가면 안 돼요?’하고 먼저 이야기해주는 덕분에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 되었음
 - 유아들이 분리수거를 도와주는 덕분에 교실에 쓰레기가 줄어들고, 환경구성을 할 때도 재활용을 이용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게 되었음
- 처음 맡은 유아반 누리과정 보육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던지라 누리과정 소모임은 누리과정에 대해 조금이나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모임이 되었음. 또한 다른 교사들과 그룹을 짜 서로의 실천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서로 공감이 되고, 도움을 많이 받는 시간이었음. 녹색성장교육(환경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하기도 하고, 교사가 먼저 자연환경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기엔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해 봄. 또한 일회성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을 해야 유아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미디어중독 예방교육 실천사례

강민희_한마음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3세반

적용시기 10~11월

실천방법 대소집단활동 시간

실천내용

1. 인터넷, 미디어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2. 스마트폰, TV시청,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대소집단 신체활동시간에 직접 아이들과 해보고 가정에 전달
3. 멀티콘텐츠를 활용하지 않고 동화카드를 이용하여 동화의 내용을 연상하여 나열해봄



동화 카드를 맞춰보아요



이불 썰매를 끌어요(가정과의 연계)

교육효과**1. 유아의 변화**

- 이야기 나누기 시간에 자신이 주말동안 있었던 일을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었음
- 스마트폰, TV시청, 컴퓨터 게임을 지양하도록 가정에 전달하였고 3주 정도가 지난 후 부모님께 이전과 변화된 점을 여쭙보았더니 늦게 잠자리에 들었던 아이가 잠자리에 들어 취침하는 시간이 많이 앞당겨지며 숙면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심
- 교구활동에 대한 유아들의 궁금증 및 동기유발이 향상 됨

2. 교사의 변화

- 수업 진행시 멀티콘텐츠 사용을 최대한 줄임
- 멀티콘텐츠 자료가 있으나 사용하지 않고 활동에 필요한 교구 및 수업 준비를 더욱 연구하여 세부적으로 준비하여 질이 향상 된 수업이 진행 됨
- 가정에 연계할 놀이를 먼저 아이들과 해봄으로써 놀이에 대한 흥미를 높여 긍정적 상호작용이 더욱 원활해짐
-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놀이가 연계 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에

제 언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 많아짐

교사소모임에서 얻은 것들을 수업에 적용하면서 교사로서 나태해진 모습을 돌이켜보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미디어 활용이 쉽고 편리하지만 활동을 위해 직접 교구를 제작하고 수업준비를 하며 활동에 대해 유아들의 흥미도와 참여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었음. 또 미디어를 활용했을 때 보다 훨씬 활동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억하며 기억이 오래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또래 간 자연스럽게 확장활동이 됨. 앞으로도 미디어활동을 최대한 줄이며 또 지속적으로 가정과 연계를 원활히 하여 긍정적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해야겠음

대·소집단활동 실천사례

박경희_솔로몬어린이집 교사

대상연령 만3세반

적용시기 10월

실천방법 자유선택활동 시간

실천내용

1. 색 점토를 이용하여 김밥 말기를 함
2. 색깔 점토에 따라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에 대해 알아 봄
3. 김밥에 넣고 싶은 재료를 넣어서 김밥 말기를 함
4. 김밥을 말고 칼로 썰어 보고 역할영역에 비치해 두어 유아들이 나들이 가서 먹는 활동으로 전개 해 보았음



점토로 김밥을 말아요



야외에서 김밥 도시락을 먹어요

교육효과 1. 유아의 변화

- 김밥의 재료 탐색을 해 봄으로써 그동안 멀리 했던 채소류에 관심을 보임
- 점심시간 채소류의 이름을 이야기 하며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임
- 확장 활동으로 요리 활동으로 김밥을 만들 때 자신 있게 요리 활동을 하였으며 김밥을 싫어하던 유아들도 조금씩은 먹어 보는 기회가 되었음
-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의 이름을 다양하게 말 할 수 있었음
- 친구들이 이야기 하는 재료를 듣고 엄마가 해 주던 김밥의 재료 외에 김밥에 다른 재료가 들어감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유아들이 빵 칼로 점토 김밥을 썰어 봄으로 점토가 주는 부드러움을 알게 되었고 잘라지는 모양에 관심을 보이며 길이를 가늠하는 개념, 재료를 자르면서 입체 도형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게 됨
- 역할영역에 유아들이 직접 만든 점토 김밥을 준비해 두었더니 다른 김밥 교구보다 더 관심을 갖고 야외 나들이 나온 역할놀이를 즐겁게 참여함

2.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이 말하는 김밥 재료를 다양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반찬의 종류를 계속 이야기해 주어 유아들이 채소나 반찬의 종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골고루 먹도록 이야기 하게 됨
- 실제 요리 활동으로 김밥 말기를 하여 유아들이 실물 김밥 말기와 점토 김밥 말기의 차이점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게 됨
- 유아들과 점토 김밥 말기를 통해 여러 가지 채소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점심 시간에 나오는 채소류와 반찬의 종류에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됨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채소류와 반찬의 종류를 알아봄으로써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여 유아들의 편식을 줄이는 교육으로 이어 짐
- 유아들이 관심을 갖고 점토 김밥 말기를 통해 소근육 발달을 돕는 시간이 됨
- 점토 김밥으로 야외에서 김밥을 먹는 활동으로 전개 되며 또래 간의 자연스러운 역할놀이가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음
- 확장활동으로 김밥 말이 요리활동으로 이어져 유아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즐거운 요리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반듯하게 말고자 하는 모습에서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음

